

도심속 열린교회; 상징성과 역사성의 공존

An Open Church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s;
Coexistence of the Symbolic and the Historic

대담자 / 유원재(다건축)

설계자 / 정시춘(정주건축)

You Won-Jea & Chung Si-Chun

일 시 / 98. 1. 23(금) 14:00~

장 소 / 정주건축



대담광경(좌: 정시춘, 우: 유원재)

유원재 _____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은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거대해진 교회의 여러기능을 해결할 노력이 느껴지는 종교건축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로 이런 매머드 교회건축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게 되는데 설계자의 생각을 듣고 싶군요.

정시춘 _____ 한국 개신교 교회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난 100여년 동안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중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 사회적 저항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교회건축의 출현에 대한 부정적 비판들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건물이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되고, 주중에는 비어있다는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교회 자체내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회의 예상되는 모습과 그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미래교회는 교회 본래의 기능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의 활동과 함께 사회 문화, 복지, 사회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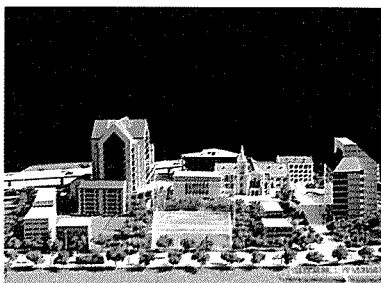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의 규모에 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처럼 대형교회가 바람직하나하는 문제는 건축외적인 문제이어서 건축가로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수만명의 교인이 주일날 하룻동안에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성도간에 친교하는 등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공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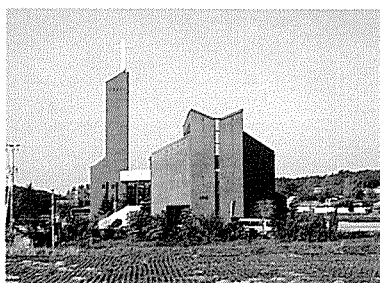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은 주로 교회 교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들은 이동식 칸막이에 의해 다양한 크기로 공간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음악당, 소극장,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의 문화시설과 함께 지역사회에 개방될 것입니다.

더욱이 영락교회는 한국사회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개최되는 다양한 연수, 세미나, 음악회를 위해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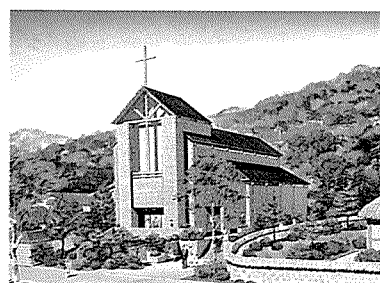
앞서 말했듯이 매머드 교회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시설이 평일에 비어있는 데도 지역사회에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이 교회의 계획대로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늘 유익



영락교회 현상안 모형



합력 양문교회



유관순기념 매봉교회

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친근한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원재 _____ 저도 이 교회 교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 나름의 교회그림을 각자 머리속에 그린다 봅니다.

본당과 아담한 소예배당은 서로 친숙한 기분을 자아내나 본당과 대규모의 기념관과의 대응관계는 아직 익숙치 않다고 봅니다. 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기념관이 반사유리로 되어 있어 본당의 반영으로 정면성을 대신하였다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당(OLD)과 새로 지어진 부속시설물(NEW)과의 만남을 어떻게 풀어 갔는지 알고 싶군요.

정시춘 _____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바로 유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였습니다.

영락교회 본당은 아시는대로 영락교회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기능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는 건물이며, 또한 일반인들에게 영락교회의 시각적 이미지를 심어준 건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서구 기독교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었던 고딕양식이어서 형태적으로 매우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이 거대한 50주년 기념관이 본당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본당을 반영시키는 수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이유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 선교적 사명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야 하며, 교회건축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영락교회의 시각적 사인이었던 본당 건물은 주변의 고층건물들과 삼일고가도로에 가려져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50주년 기념관이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둘째, 유리라는 재료의 이미지가 비교적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인 영락교회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셋째, 가능한 넓은 Open Space를 확보하기 위해 탑상(塔狀)의 매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양한 기능공간들로 구성되고 여러개 층에 대규모의 주일학교 예배공간을 배치해야하는 이 건물을 유리타워로 구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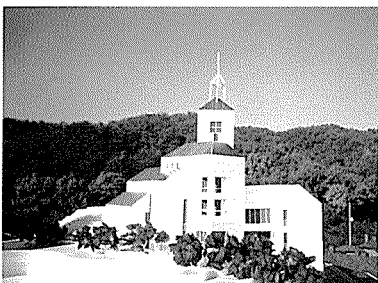
따라서 저는 본전의 고딕의 형태언어를 끌어오므로써 동질성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십자형의 금경사진 박공지붕과 Pointed Arch, 모서리의 뾰족탑, 화강석 혹은 투기의 외벽재료들이 그러한 요소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영역안에서는 신·구 건물들이 유유상종으로, 도시에서는 본당이 보여주었던 영락교회의 건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건물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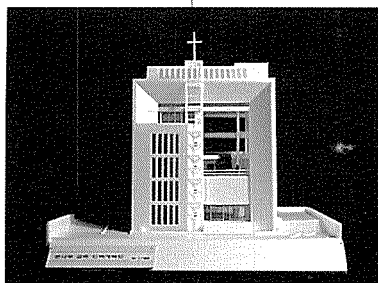
유원재 _____ 정선생님은 그간 많은 교회건축물을 설계했고, 그 작품들을 통해 설계자의 무리없고 저항감 없는 자연스런 건축어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설명적 건축어휘 보다는 교역자의 종교적 메시지로도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에 건축가의 추상적 손길을 통해 신비성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 좋은 종교 건축물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종교건축의 추상성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시춘 _____ 종교건축의 '신비성'에 관한 한 저는 기독교 건축에서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적 종교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 중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은 신비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타종교에 비해 매우 이성적인식의 종교라고 생각하여, '신비성' 보다는 '상징성'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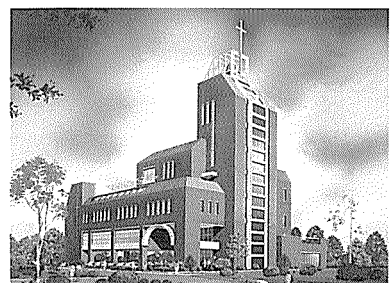
더욱이 50주년 기념관은 교육, 문화 기능을 가진 교회의 부속시설이지 교회의 중심인 예배당이 아니어서, 이 건물에서 일어날 다양한 활동들에 가장 적합한 기능적인 건물



진주 한사랑 교회



구리 교문교회 계획안



구리 교문교회

을 만들면서, 본전과 조화되고, 본전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뒷받침 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유원재 _____ 저 자신도 항상 변신의 노력을 하나, 다른사람의 시각으로 잘 인지되지 않아서 막다른 벽을 느끼곤 합니다. 정선생님의 자기 작품 세계에서의 탈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시춘 _____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작품순례여행을 통해서 자극받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도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경험이 변신이나 자기 작품세계에서의 탈출이 아닌 축적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시간의 건축에 대한 경험과 사고는 자신의 생각을 고착시키기도 하고, 정리시키기도 하겠지요. 저는 건축이 건축자체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목적과 활동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합니다. 또한 그 건물이 놓여야 할 장소와 주변환경의 조건 또는 요구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위해서, 무언가 다르기 위해서, 또는 불확실한 실험을 위해서 건축의 기본적인 문제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보다 더 충실히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설계하는 건물마다 사용하는 사람과 목적, 그리고 그 장소와 환경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비슷하다고 평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저의 건축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원재 _____ 마라톤 같이 긴 5년반이 넘는 동안 설계, 감리를 통해 느꼈던 애환의 뒷얘기거리가 있으면 들

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설계자를 지치게 만들었던 일이라면 가, 애초의 생각이 긴시간동안 어떻게 바뀌고 흘러가 완성되었는지요?

정시춘 _____ 예, 참 돌이켜보면 긴 시간이었어요.

처음 현상에 당선하고 나서 새벽에 남산에 올라 영락교회를 내려다 보면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하리라 여러번 결심했지요. 그러나 설계를 진행해가는 동안, 밤새워 만들어낸 디자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치는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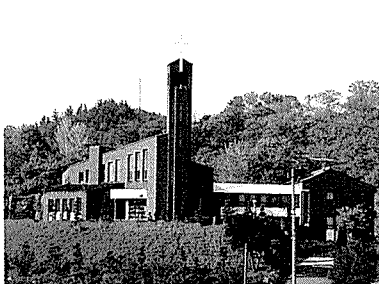
특히 감리를 하는 동안 감리자를 감독하려는 건축주측 감독자와의 심한 마찰은 설계자로서의 의욕을 무참히 꺾어놓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축주가 설계자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건물을 위한 길이요, 곧 건축주를 위한 일일텐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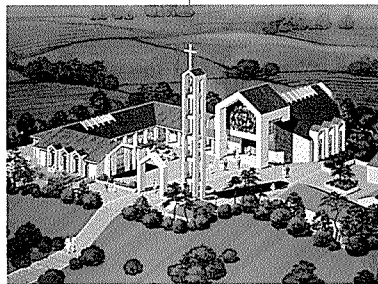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겨진 그러나 건축가로서, 더욱이 크리스찬으로서 보람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원재 _____ 구경꾼의 입장으로 숨겨진 곡절과 이품도 생각치지 않고 느낀대로 질문을 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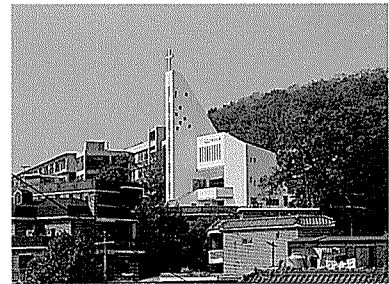
이제까지 축적된 종교건축의 토대로 하느님까지도 흡족해 하시는 현대적 시대성을 넘어서는 교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제일교회



금암 성결교회



서강교회